



윤상원, 박기순 열사 영혼 결혼식을 모티브로 한 작품 '부활-역사 속에 살아오다' 앞에서 포즈를 취한 하성흡 작가.

“5월 항쟁 증언 약속 41년 만에 지켜”

예술가에게는 평생의 작업이 있기 마련이다. 작가는 꼭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며, 음악가 또한 만들고 싶은 곡이 있다. 화가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다. 어쩌면 모든 예술가는 그 하나의 작품을 위해 지난한 시간을 견디는지 모른다. 가슴에 박힌 '못'과도 같은 그 작품을 현실이라는 배경 위에 빼놓지 않고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성흡(60) 화가도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다. 4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던 약속의 장면이 있었다. 그는 5월 항쟁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헬기양성하던,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청춘의 시기였다.

26일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격하던 날 밤, 그는 전일빌딩 골목을 돌아 집으로 내달렸다. 도청 앞에서 열린 시민궐기대회를 마치고 어두운 거리를 돌아다니는 길이었다. “언젠가는 화가가 돼서 오늘의 참상을 증언하리라.” 비록 그것이 합리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되뇌었다.

그날의 풍경은 영원한 트라우마로 남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욱 또렷하게 내면을 지배했다. “도청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죽게 될 텐데,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장조원 복합6관에서 오는 6월 13일까지 열리는 ‘역사의 피뢰침, 윤상원’ 특별전. 검은 빨대 안경 너머로 보이는 화가의 눈빛은 유독 깊었다. 41년 전 모습을 헤아리는 눈빛 이면에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 같은 게 드리워져 있었다.

“41년이 지나 이제야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80년 5월의 상흔은 오랫동안 광주시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의 뇌리에도 41년 전 기억은 탄환처럼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하성흡의 수묵으로 그린 열사의 일대기’라는 부제처럼 이번 전시는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있다. 지난 2019년 광산구의 윤상원 열사 현장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공모를 통해 화가가 선정됐다. 전시장에는 수묵기법으로 윤상원 열사 유년기를

비롯해 들불야학, 5·18 시민군 대변인, 마지막 항전 등 일대기를 담은 그림이 걸렸다. 120호 크기의 작품 9점과 500호 크기의 작품 3점 등 모두 100여 점의 소품이 관람객을 맞았다.

이번 전시를 앞두고 아시아문화원 담당 직원이 특정 문구를 삭제한 채 홈페이지에 포스터를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작가는 “큰 행사를 앞둔 터라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에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였다”며 “무엇보다 윤상원 열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정색 자켓, 까만 빨대 안경은 화가의 고뇌 어린 시선과 맞물려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에게는 역사적인 5월항쟁에서 살아남은 이의 죄의식과 당시 참혹한 광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모두 중첩돼 있는 듯했다.

화 작가 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1980.5.21. 발포’라는 작품이다. 어떤 이들은 프란시스코 고야의 ‘1808년 5월 3일 학살’에 비견되는 그림이라고 말한다. 헬기에서 금남로 전일빌딩을 향해 발포가 이루어지고, 도청쪽에서는 계엄군이 거리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다. 현장에서 보는 발포를 묘사한 그림은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고 무참했다. 아니 참혹했다.

전시장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인상적인 작품은 박기순과의 영혼 결혼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다. 작품 ‘부활-역사 속에 살아오다’는 수많은 촛불 위에서 두 손을 맞잡은 두 열사의 모습을 잔잔하게 담고 있다. 아울러 6·10 항쟁과 이한열 열사의 마지막 모습,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으로 새롭게 열리는 부활의 세상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준다.

“내가 과연 그의 불꽃 같은 생애를 해석하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수많은 자문하고 또 자문했습니다.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이 작업을 하지 않고는 화가로써의 제 삶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짧지만 경이로웠던 윤상원 열사의 삶을 통해 5·18의 진정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하성흡 작가 ‘윤상원’ 특별전 6월 13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유년기·마지막 항전 등 일대기



‘발포’

‘고양이, 다산에 노닐다’

정해영 기획전, 6월30일까지 화순 다산미술관

호기심 가득한 고양이의 시선이 연못 속 붉은 물고기에 닿는다. 파란 나팔꽃을 훑듯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도 흥미롭다. 꼬리를 바짝 치켜들고 꽃그늘 아래 유유자적 거니는 모습도 눈길을 끈다. 정해영 작가의 근작들에서 만나는 풍경이다.

한국화가 정해영 작가가 화순 다산미술관 초청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기획전을 갖는다.

‘고양이, 다산에 노닐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화순 다산마을에서 만난 고양이들을 주제로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나팔꽃 줄기를 타고 오르는 청개구리,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목과 그 끝에서 꽃을 피우는 풍경 등 정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건 자연이다. 특히 푸른빛의 강렬한 화면과 작가의 유년시절의 꿈과 소망을 상징하는, 작품 속에 숨어있는 종이비행기의 존재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다.

이번 전시에는 소박한 자연의 모습과 함께 먹으로 표현해낸 많은 고양이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담백한 수묵화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나팔꽃 한송이, 여치 한마리에만 색깔을 넣어 포인트를 준 점이 흥미롭다. 또 한지에 아크릴로 작업한 화려한 푸른빛의 작품 속에서는 고양이의 존재를 보일듯 말듯 숨겨둔 눈길을 끈다.



‘猫, 다산에 노닐다’

작품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키우는 반려묘로 정 작가는 다산마을의 고양이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마지막 주 수요일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정 작가와 함께 고양이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도 갖는다.

전남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정 작가는 광주시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 예술의 거리에 작업실과 함께 정해영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혼돈 속에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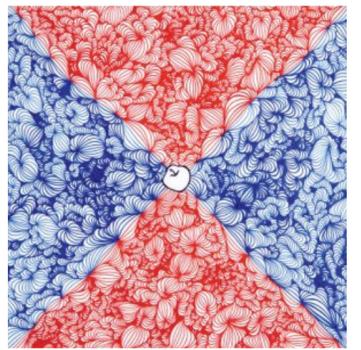
김경란 기획초대전, 6월10일까지 은암미술관

김경란 작가의 드로잉 작품을 접하면 ‘결과 시작’을 생각해 보게 된다. 펜으로 세심하게 그려낸, 반복되는 문양들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희로애락을 떠올리게도 한다. 여기에 사과, 종이배 등 ‘숨어있는’ 다른 모티브는 작품에 또 하나의 스토리를 부여한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정기)은 오는 6월10일까지 김경란 작가 기획초대전을 개최한다. ‘혼돈 속에 질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영상, 설치,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9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센터에 입주했던 작가는 작업의 폭을 확장하며 다채로운 실험을 진행해왔다.

전시장 입구에서 만나는 대형 설치 작품 ‘혼돈 속에 질서’는 불안정하고 크고 작은 원들이 모여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속되는 순환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겹으로 보기에 불규칙적으로 보이면서도 나름대로 질서와 규칙성을 지니고 있는 현상인 ‘카오스’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빨강색과 파랑색 원들은 작가가 일일이 가위로 오려서 만든 원에 가까운 동그라미들이다.

2층 전시실에서 만나는 5분 분량의 영상 ‘Violet World’는 뉴에이지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힐링의 순간을 전한다.



‘무계중심’

작가는 “누군가의 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도 하며, 누군가의 슬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혼돈 속에서의 삶의 형태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 작가는 지금까지 6차례의 개인전과 200여회의 국내외 초대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8 광명업사 이클아트센터 ‘독일 국제전시’ 선정작가,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청년작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